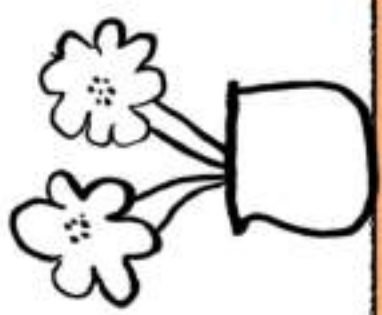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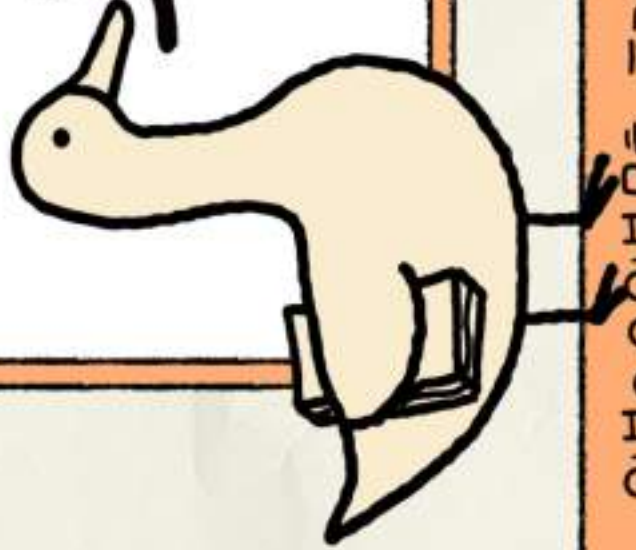


MIRI SCHOOL | Chapter 2

이웃들의 도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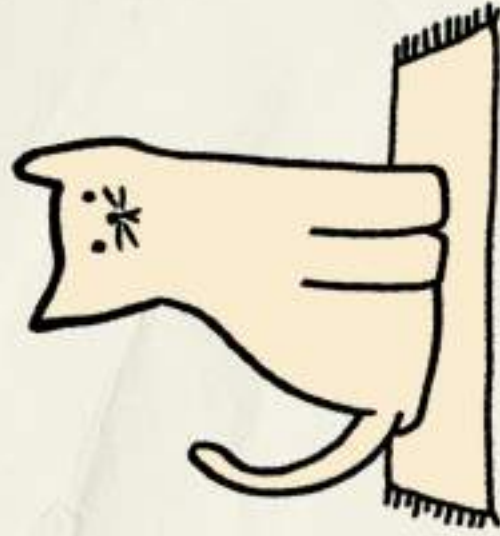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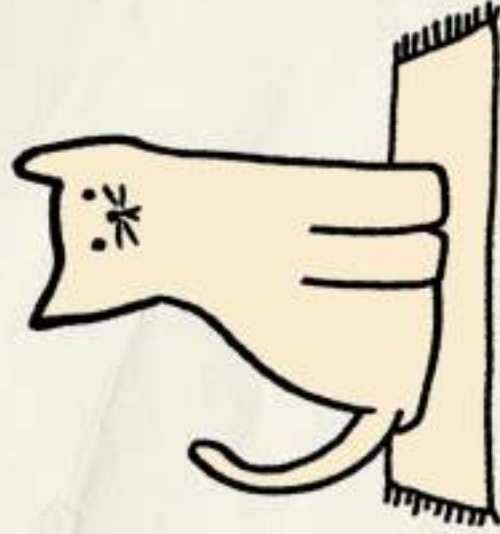
- 1 히로시마—토끼섬(오쿠노시마)
- 2 나가노현—지고쿠다니야생원숭이공원
- 3 나라—사슴공원
- 4 도쿄—후쿠로 카페
- 5 교토—아리시야마 몽키파크

CHAPTER 1



- 6 에히메현-고양이 섬(아오시마)
- 7 토치기현-알파카 농장
- 8 미야기현-자오 여우마을
- 9 시즈오카현-이즈 사보텐 공원
- 10 아오모리현-시리야자키 곳

CHAPTER 2



1 Quiz time

+ 일본에만 존재하는 동물들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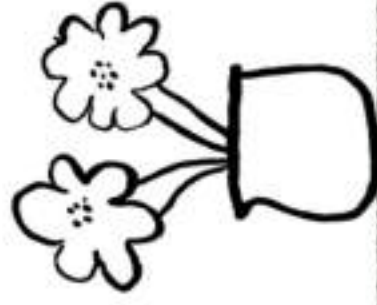
일본의 숨은 여행지 베스트 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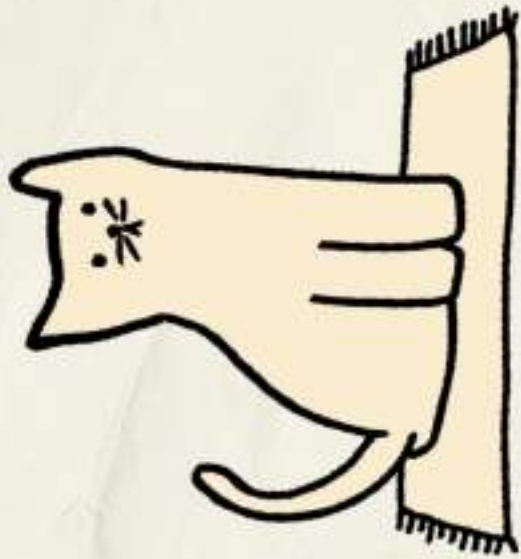
히로시마-토게섬(오쿠노시마)



해안을 벗어난 곳에 위치한 오쿠노시마(大久野島 ohkunoshima)는 토끼가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세토내해(瀬戸内海)의 섬들을 잇는 시마나미 카이도 (しまなみ海道)에서 조금 서쪽에 위치한 들리 약 4km 의 작은 섬입니다.



TIP!



1 코스

이 작은 토끼 성은 일본여행에 있어 꼭지어서 배운 가가우며 히로시마를 여행하며 갈 수 있는 좋은 코스입니다.

2 먹이

성에서 판매하고 있는 쿡이나 당근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

3 방문하기 좋은 시기

1년 내내 방문할 수 있지만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에 방문한다면 토끼들이 특히 더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히로시마—토끼섬(오쿠노시마)

☆

도동탁
토끼섬
우사지



섬에는 700마리 이상의 야생 토끼가 서식하고 있으며, 매년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히로시마—토끼섬(오쿠노시마)

어두운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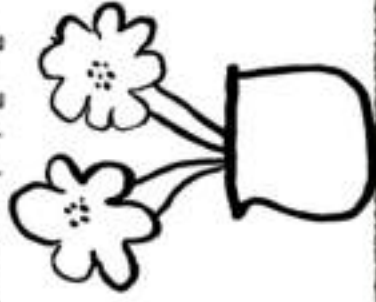
이 섬은 유명한 관광 명소지만 비극적인 과거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화학전을 금지하는 1925년 제네바 의정서의 서명국이었지만, 불과 4년 후인 1929년 오쿠노시마에 화학 무기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이곳의 한 공장에서는 머스터드 가스와 최루 가스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오직기는 해도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오쿠노시마가 이런 비밀 활동에 완벽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같은 방법을 동원해 공장의 존재를 비밀리에 부치려고 했으며, 일부 지도에서는 이 섬을 식재한 적도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 현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문서는 파괴되었고 연합군이 들어와 비축해 놓은 화학 물질을 폐기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정부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공장으로 인해 건물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전 및 의료적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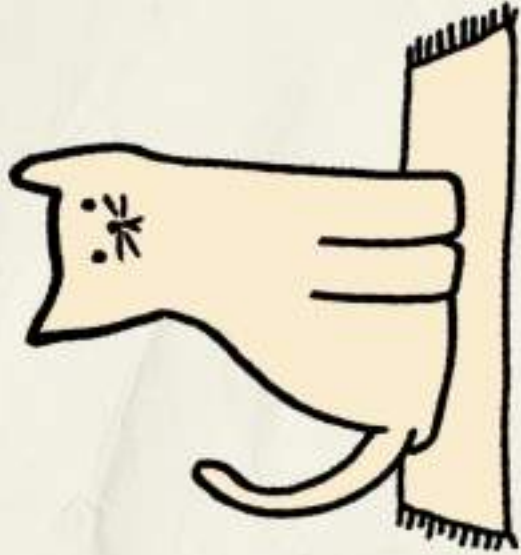
나가노현-지고쿠다니아생원숭이공원



나가노현 북부의 조용한 계곡 안쪽에는 세계적으로 보
기 드문 독특한 광경이 기다립니다. 지고쿠다니아생원
숭이 공원(스노 몽키 파크)은 일본원숭이들이 무리를
짓고 사는 서식지 중 하나로, 좀처럼 쉽게 볼 수 있는
일본원숭이들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겨울에는 이들이 지역 문천에서 목욕을 즐
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TIP!



1 원숭이

일부원숭이, 또는 '스노 몽키'로 불리는 원숭이들은 인간을 제외하고 초박단에 분포하는 영장류입니다.

2 유의점

원숭이들에게 절대 먹이를 주거나, 손을 대거나, 위협적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3 방문하기 좋은 시기

지고쿠다니 공원은 연중 열려있으나 가장 보기 좋은 시기는 원숭이들이 따뜻한 온천에 모여드는 겨울입니다.



나가노현—지고쿠다니아생원숭이공원

사

猿 ざる

두-동탁



계절에는 이들과 지어 인치에서 무우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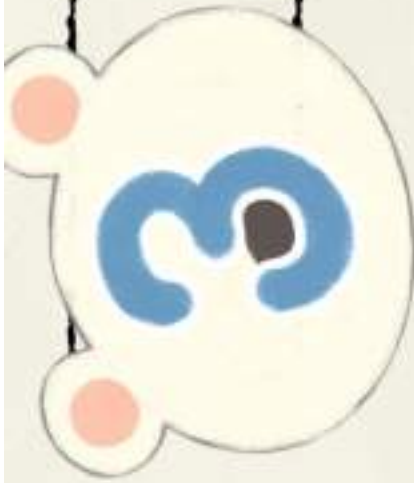


나가노현—지고쿠다니아생원숭이공원

그들이 생애

일본원숭이 관찰에는 계절마다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의 아기 원숭이들이 태어나 자라며, 여름에는 이들이 파릇파릇한 나무 사이에서 뛰어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원숭이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 과일과 견과류를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띄입니다. 겨울 추위는 후닥닥이지만, 일본원숭이들은 서로를 감싸 안고 체온을 유지하며 깃갓이 벗겨냅니다. 이 기간에는 시물미 싹, 나무껍질, 때로는 미니랄이 풍부한 토양도 먹이로 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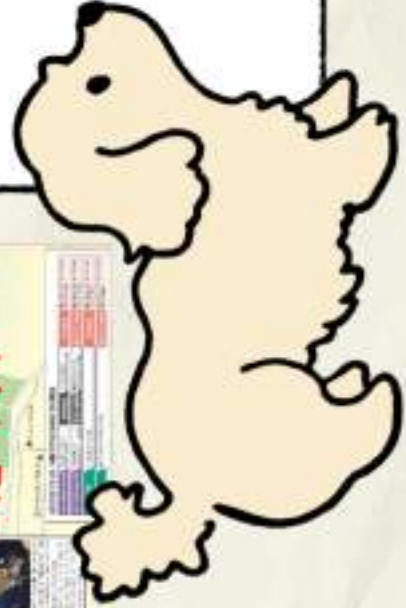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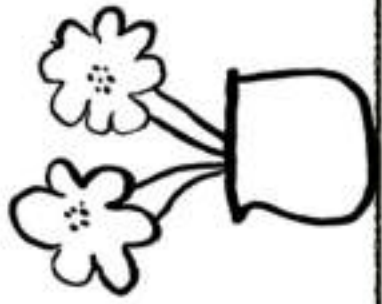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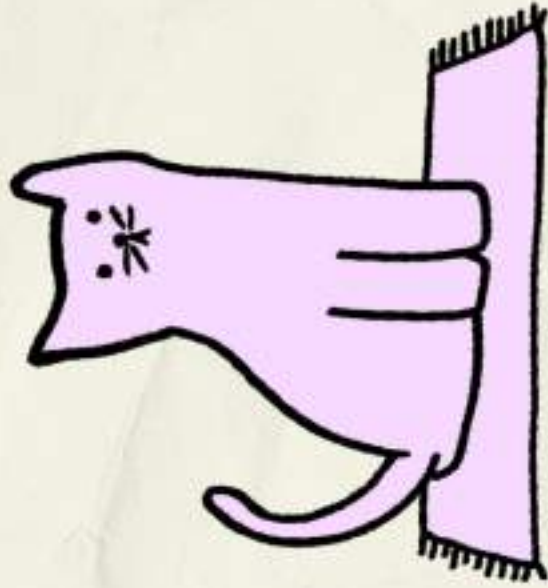
나라-사슴공원



오사카역에서 약 40분 정도 전철을 타고 나가면 약 12000마리의 사슴들을 만날 수 있는 나라 사슴공원 (NARA PARK / 나라こうえん)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슴들과 소통하기 좋은 이 공원은 대형 규모의 공원으로 동대사 호류사 박물관 등 가까운 곳에 관광지가 모여 있습니다.



TIP!



1 상점

사슴은 대부분 주변 상점에서 판매하는 '사슴 고자'를 사온 방문객을 대단히 반기는데, 몇몇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합니다.

2 규칙

공원의 규칙은 반드시 따르셔야 하며 특히 짹짹기 철에는 일부 사슴이 공격적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방문하기 좋은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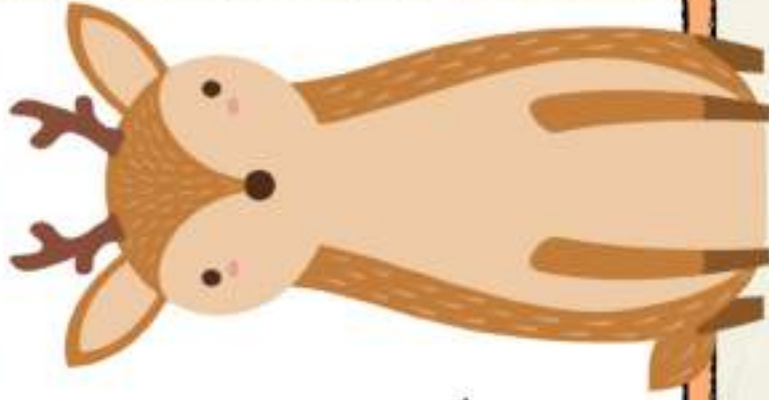
이년 내내 사슴은 공원에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 공원 주변에서 '사슴 고자' 상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라-사슴공원



사슴의 역사

나라 신화에 편찬된 만요슈에는 나라의 사슴에 대한 노래가 나온다. 767년에는 후지오라씨의 우지가미(氏神)를 모시는 가스가타이사(鹿島神社)에서 이 때, 우지가미 중 한 우미인 타케미카즈치가 카시마 신궁(鹿島神宮)에서 가스가타이사로 올 때 흰 사슴을 타고 나타났다고 한다. 후지오라씨는 사슴을 승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나라의 사슴은 신성한 동물로서 보호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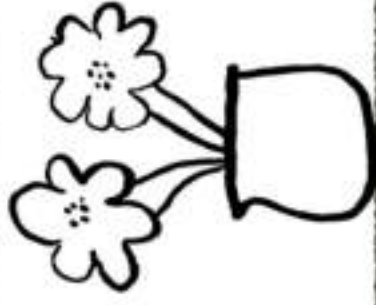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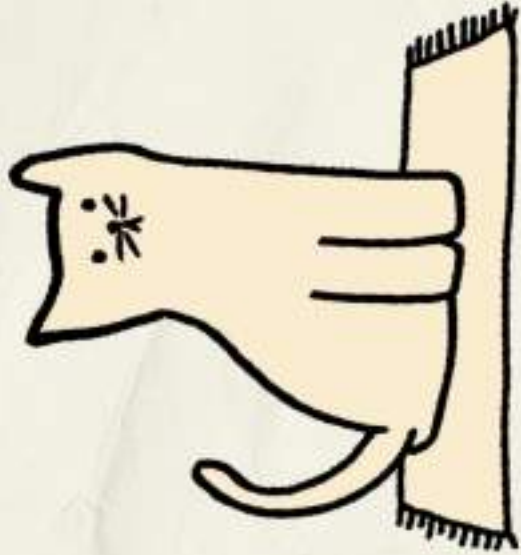
도쿄-후쿠로 카페



올빼미는 일본에도 옛부터 서식 육식 조류입니다.
 그러나 야행성과 숲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 야생
 올빼미를 만나는 것은 드물습니다. 그렇지만 올빼미와 마차가
 지료, 독수리 등의 맹금류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카페가
 2012년경부터 도쿄를 중심으로 오픈하기 시작해, 2022년
 현재도 도내 각처에 점재하고 있습니다.



TIP!



1 체험

자신의 팔에 올빼미를 멈추거나 먹이를 주거나 함께 사진 촬영 등 올빼미가 자신의 팔로 날아오는 '플라이드 체험'을 실시하고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2 주의점

올빼미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빼미는 인간에 비해 높은 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면 올빼미가 놀랄 수 있습니다.

3 방문하기 좋은 시기

도쿄에 올빼미 카페가 몇몇이 있지만 인기가 많아 예약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Voyagin을 통해 예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쿄-후쿠로 카페

鳥 ぶくろふ

두동탁



도쿄의 유명한 카페에서 다양한 종류의 올빼미를 만날 수 있다.

도쿄-후쿠로 카페



후쿠로 카페 주의점



☑ 몸집이 작은 친구들을 큰 친구들 앞으로 데려가면 안돼요.

☑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음이나 플래시는 금지.

☑ 가게에 방문할 때는 데려오우셔도 괜찮은 옷을 추천합니다.

☑ 올빼미 야생동물 보호회 후원 기업입니다. 올빼미의 행동을 방해하는
음식이나 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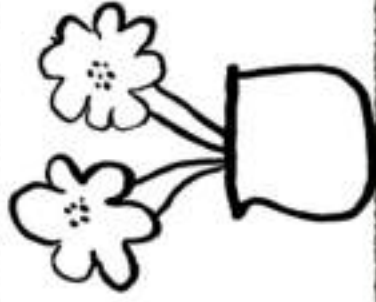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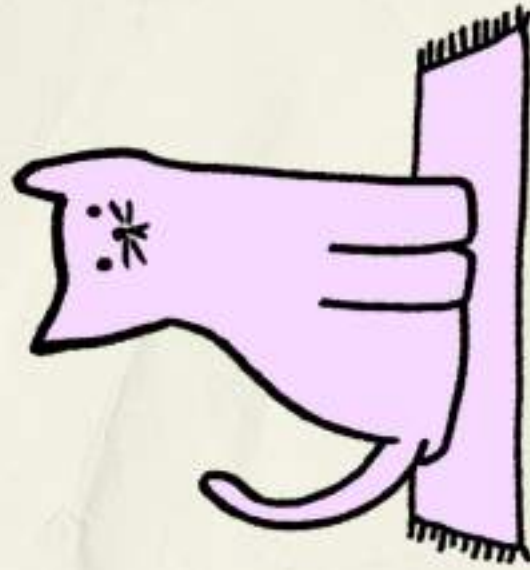
교토-아리시야마 몽키패크



교토시 영수의 과고야마에 있는 아리시야마에 있는 「아리시야마
영수의 패크 이온타이머」는 아리시야마 영수의 패크 이온타이머는
모든 동물은 아리시야마에 볼 수 있다고 표명하고, 난 명소입니다.
아리시야마는 겨울에 볼 수 있는 겨울 동물들이 있습니다.
패크 160미터의 이온타이머의 정상에 있는 휴식처 주변에서 아리시야마
영수의 패크와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현재 약 120미터 정도의 인공
영수의 패크라고 있습니다.



TIP!



1 휴게소

휴게소(산장)에서 구매한 사과나 땅콩을 정해진 장소에서 원숭이들에게 줄 수 있어요.

2 전망

이오시마의 정상에 오르면 도시의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3 방문하기 좋은 시기

일년 내내 방문 가능한 장소지만(동절기 단축 운영, 악천후 시 폐장) 아라시마의 풍경은 봄과 가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교토-아리시야마 몽키파크

사

猿 さる

두-동탁



이 장소에서 영수들이기에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토-아리시야마 몽키파크

아리시야마 교토 원숭이 공원의 역사

아리시야마 원숭이 공원은 이오테이마 원숭이 공원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교토의 문화유산입니다. 일본마카크의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이곳은 이 흥미로운 동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합니다. 공원 내에서는 원숭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연 속에서 원숭이의 삶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공원은 야생 원숭이의 준자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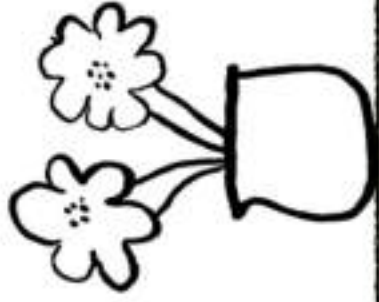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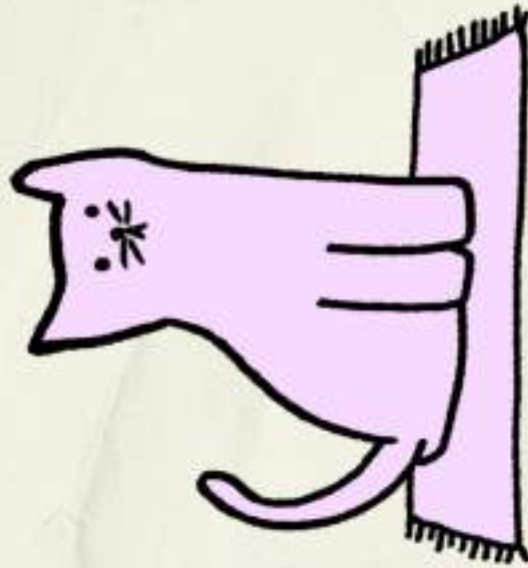
에히메현 - 고양이 섬(아오시마)



아오시마(靑島)는 일본의 구성하는 섬(규슈,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중 가장 작은 섬인 시코쿠의 에히메현(愛媛県)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세토내해(瀬戸内海) 바다에 둘러 쌓인 섬입니다. 가까운 나가하마(長浜港)항에서 13.5km 떨어진 섬으로 면적 0.49km² 섬 최고 표고 91m 해안선 둘레가 4.2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TIP!



1 섬

JR 열차나 고속선을 타면 섬까지 순조롭게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침에 JR 열차를 놓치거나 그날 날씨가 고속선을 타기에 적합하지 않은 한 고양이를 방문할 방법이 없습니다.

2 배

섬으로 향하는 배는 8시, 14시 30분 하루 두 편 뿐입니다.

3 편의점

섬에는 가게가 없으니 출발 전 편의점에 들러 식사거리와 고양이 용품들을 사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히메현-고양이 섬(아오시마)

사

猫

ねこ

두둥탁



서해 상고 이노 2000리 이시와 고양이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에히메현—고양이 섬(아오시마)

섬의 역사

원래는 무인도였던 섬으로 1639년 일본 본토에서 한 일가가 이주해서 살기 시작 1942년에는 889명 까지 늘었지만 그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지금 17명 밖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섬 주민의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섬에는 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있어 일본의 고양이 섬으로 불리는 곳 중 하나입니다. 오래전 물고기 잡는 그물을 걸어먹는 쥐를 잡기 위해 데려왔던게 고양이 섬의 시작입니다. 섬의 인구가 50명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10년전 부터 인구의 감소와는 반대로 고양이의 수는 늘기 시작했고 2013년 9월 아오시마의 고양이들의 생태를 촬영한 사진이 블로그에 게재된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야마다, 관광객들에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는 낙원으로 알려진 곳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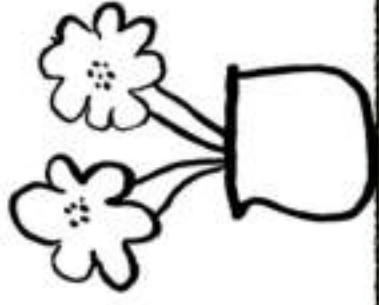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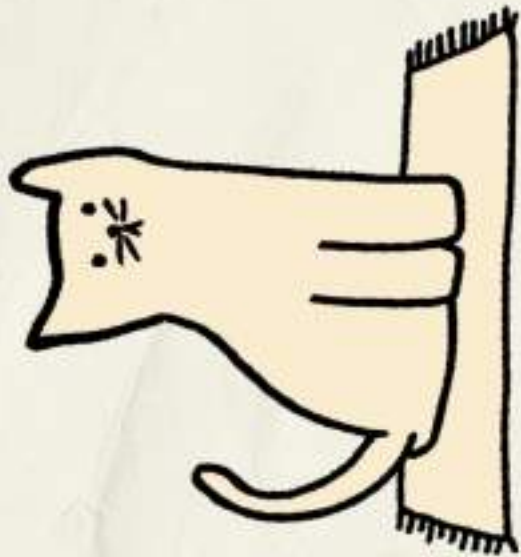
토치기현-알파카 농장



나스는 토치기현의 마을로 아름다운 산과 훌륭한 온천으로 유명하며, 또한 일본에서 가장 큰 알파카 농장이 있는 곳입니다.
=> 토치기는 간단히 말씀 드리면 온천으로 유명한 니키니키가 있는 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알파카의 고향인 남미를 떠올리며 나스 알파카 농장을 나스피추라 부르기도 합니다.



TIP!



1 동물 왕국

알파카 농장은 동물 왕국에 속한 농장 중 하나이며 왕국 자치체에는 알파카 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2 털

알파카들은 털을 목적으로 길러지기 때문에 방문 시기에 따라 털 복숭이 이거나 까까머리 일수도 있습니다.

3 방문하기 좋은 시기

농장은 목요일과 설날을 제외한 일 년 내내 열려있습니다. 목요일이 공휴일이 경우에는 오픈을 하며 대신 금요일에 닫습니다.



토치기현-알파카 농장

☆

アルパカ alpaca ^{두들탁}



3000리안, 알파카가 25.000리안, 알파카 25.000리안, 알파카 25.000리안, 알파카 25.000리안.

토치기현-알파카 농장



나스 동물원의 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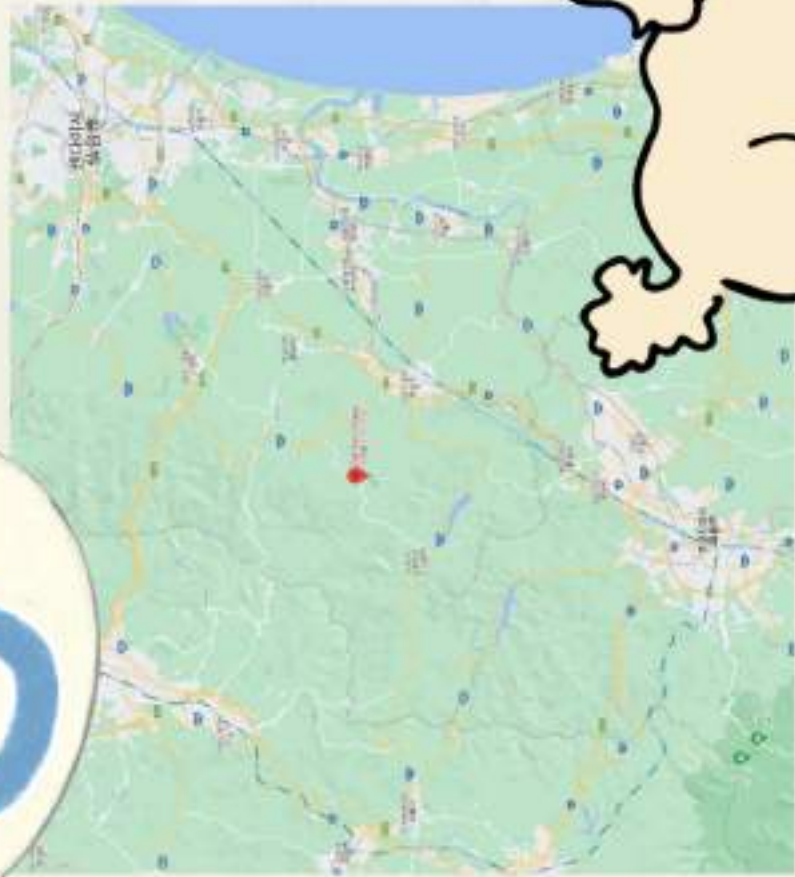
보통 동물원하면 떠올리는 사자, 호랑이, 기린, 코끼리 등의 동물들은 이 동물원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알파카, 낙타, 조랑말, 카피바라, 랩시판다 등 각종 예뻐이어서 관련된 상품의 캐릭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두코동의 약 10배의 광활한 부지에 세워진 나스 동물의 양국은 큰 규모의 길라잡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계에서 몰려든 50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뛰놀고 있어, 맘에 든 아이와 함께 동물원내를 산책하는 등의 옵션도 가능한 조공 이색적인 동물원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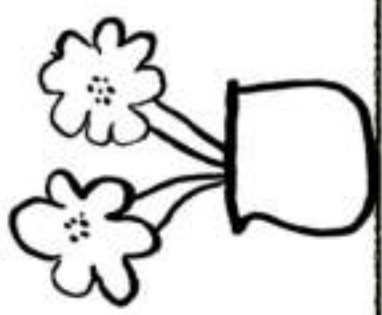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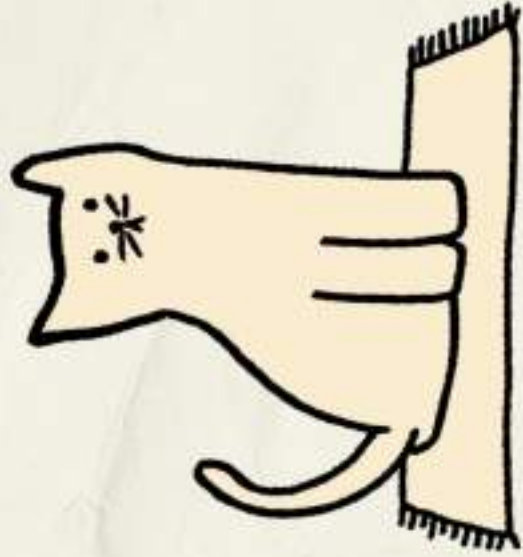
이야기현-자오 여우마을



이번 센터에서와 후쿠시마 사이에 위치한 이야기현에 수 많은 여우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자오 여우마을이 있습니다. 도쿄 근교 여행지로도, 센터이 근교 여행지로도 적합한 이곳은 입소문과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의 힘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오 여우마을은 여우들이 자리를 잡고 사는 특별한 숲으로,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구경할 수 있습니다.



TIP!



1 사진

여우들의 사진은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동물들

자오 여우마음에는 여우만이 아닌 조랑말, 토끼, 영소 등의 다른 동물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3 안기 체험

하루 2번 추가요금을 내고 직접 여우들을 안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운이 좋다면 갓 태어난 아기 여우를 안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현-자오 여우마을

사

狸

きつね

두동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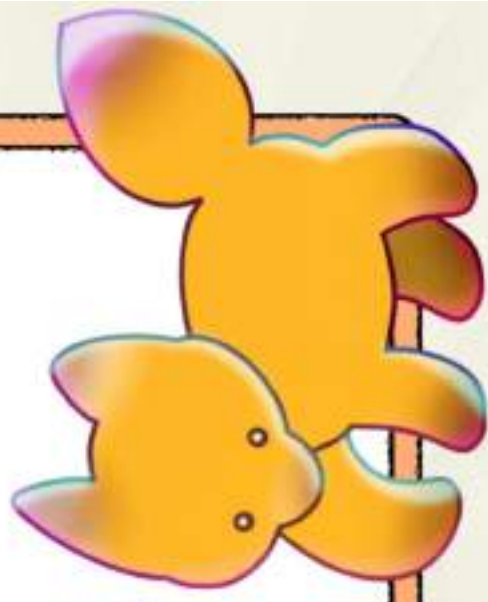
모든것을 물리쳐 낼수 있는 귀여운 동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야기현-자오 여우마을

이나라 신사 순례여행

일본에는 여우에 관한 설화, 신화, 전설이 많습니다. 특히, 여우들은 인간으로 변신을 할 수 있으며 장난 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두 여우 조각상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 마을의 빨간 이나라 신사를 방문하여 장난꾸러기 여우들과 만나보세요. 일본에 있는 신사의 3분의 1은 신토 신앙의 변형, 풍요, 쌀의 신인 이나라 오키미에게 바쳐진 신사라고 합니다. 이나라 오키미 신의 말을 전하는 사자가 바로 여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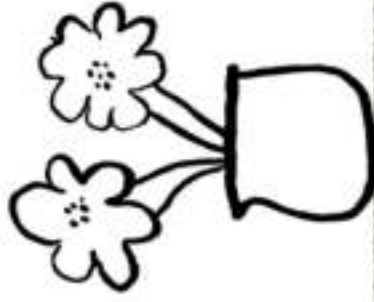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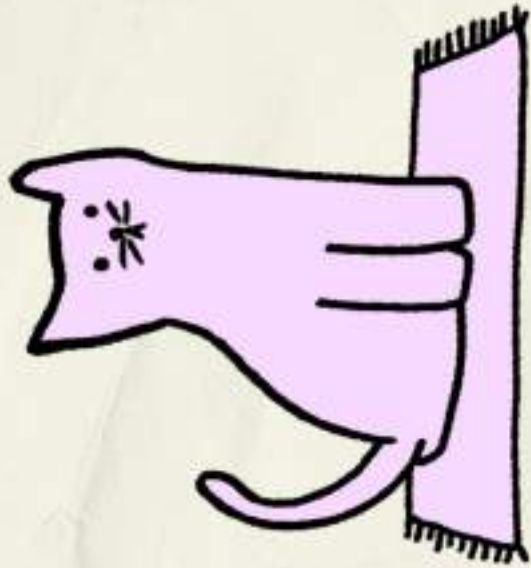
시즈오카현-이즈 사보텐 공원



시즈오카현 이토시에 위치한 "이즈 사보텐 동물공원(伊豆シャボテン動物公園)"은 동물과 선인장을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입니다. 세계 각지의 선인장과 다육식물, 약 1500여 종이 재배되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인장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즈의 겨울 풍물시가 되고 있는 것이 "원조 카피바라의 노천탕(元祖カピバラの露天風呂)". 이곳 이즈 사보텐 동물 공원이 원조라 불리는 카피바라의 입우 모습을 보고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TIP!



1 140종

이즈 사바텐 동물 공원은 카피바라나 선인장에 주목하기 쉽지만, 더 많은 다른 동물들도 살고 있으며, 그 수는 140종입니다.

2 투어

원내 중앙 연못에는 크고 작은 9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섬들을 둘러 보면서 동물들을 관찰하거나 먹이주기 등을 할 수 있는 "애니멀 보트 투어즈", 2개의 코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방문하기 좋은 시기

카피바라 온천은 보통 12월부터 4월 초까지 오픈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자세한 입장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즈오카현-이즈 사보텐 공

두들인

カピバラ capybara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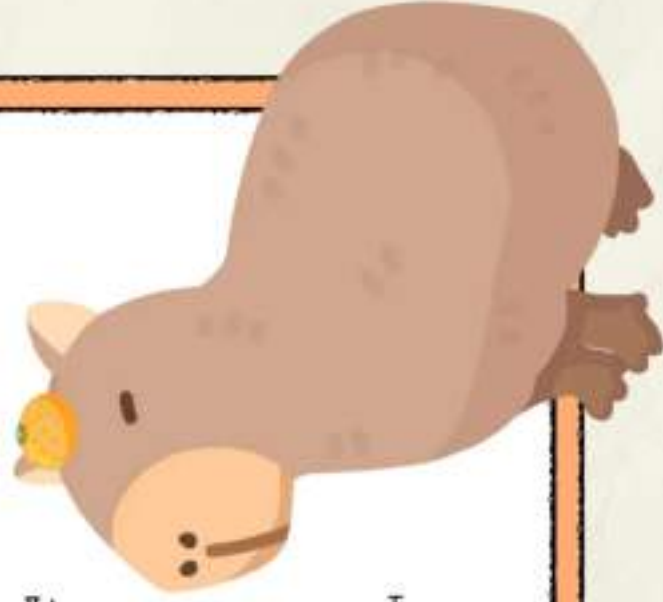
많은 카피바라는 가족과 함께 무뎀하고, 부모 자식이 몸을 가리며 무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즈오카현-이즈 사보텐 공원

카페바라 노천탕의 탄생

이즈 사보텐 동물공원의 명물 이벤트 "원조 카페바라의 노천탕"은, 2017년에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일본 각지의 동물원에서 카페바라의 인목은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발상은 이곳 이즈 사보텐 동물 공원입니다. 당시 물에 들어가기를 정말 좋아하는 카페바라들이 겨울에는 물이 차서 들어갈 수 없어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바라들이 작은 물구덩이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본 사육사들이 목욕을 준비하자, 카페바라들은 기뻐하면서 인목했습니다. 그 이후, 겨울의 노천탕은 이즈 사보텐 동물공원에 있어서도, 카페바라들에게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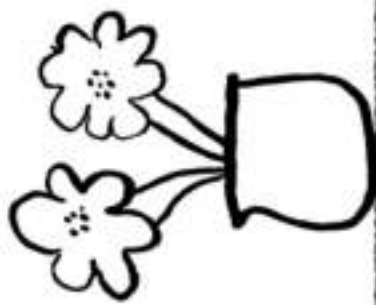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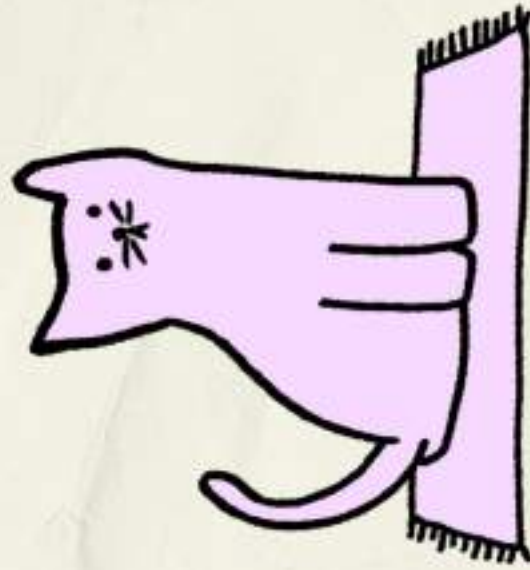
아오모리현 - 시리아자키 꽃



시리아자키는 아오모리현 시모케타군 히가시도리 마을 시리아 케시
 코산에 있는 입니다. 시모케타 한탄 준국립 공원의 일부인 시리아
 자키 꽃은 혼슈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습지와 희귀한
 꽃과 산악 식물이 자라는 곳입니다. 이 지역 상징은 1901년 최초의
 자키 등대로 세워진 시리아자키 등대입니다. 오늘날 이 건축물은
 일부분의 50대 등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TIP!



1 등대

만들은 종종 시리아 곳곳에 있는 유명한 등대 근처에서 표를 띄기도 하는데 그 모습은 어느 풍경보다도 아름답습니다.

2 주의

만들이 걸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사동굴이라는 점을 숙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3 방문하기 좋은 시기

만들과 마찬가지로 연중 아무 때나 시리아자카에 올 수 있습니다.



아오모리현 - 시리아자키 곳

사

馬

うま

두동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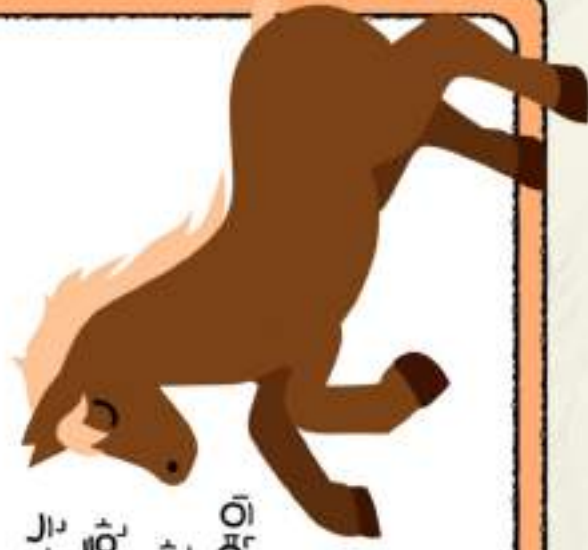
이상이나 자라는 양들이지만 수량이 적은 까닭에 양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아오모리현—시리아자키 곳

칸다치에 말

아오모리의 추운 겨울 날씨를 견디는 이곳의 말은 "추위를 견디는 말"이라는 뜻의 "칸다치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리아자키 곳을 따라 우치한 칸다치에 말은 짙은 다리와 튼튼한 몸통이 특징으로 시모키타 반도의 혹독한 겨울로부터 그들 보호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지역 말들은 이 지역의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소중히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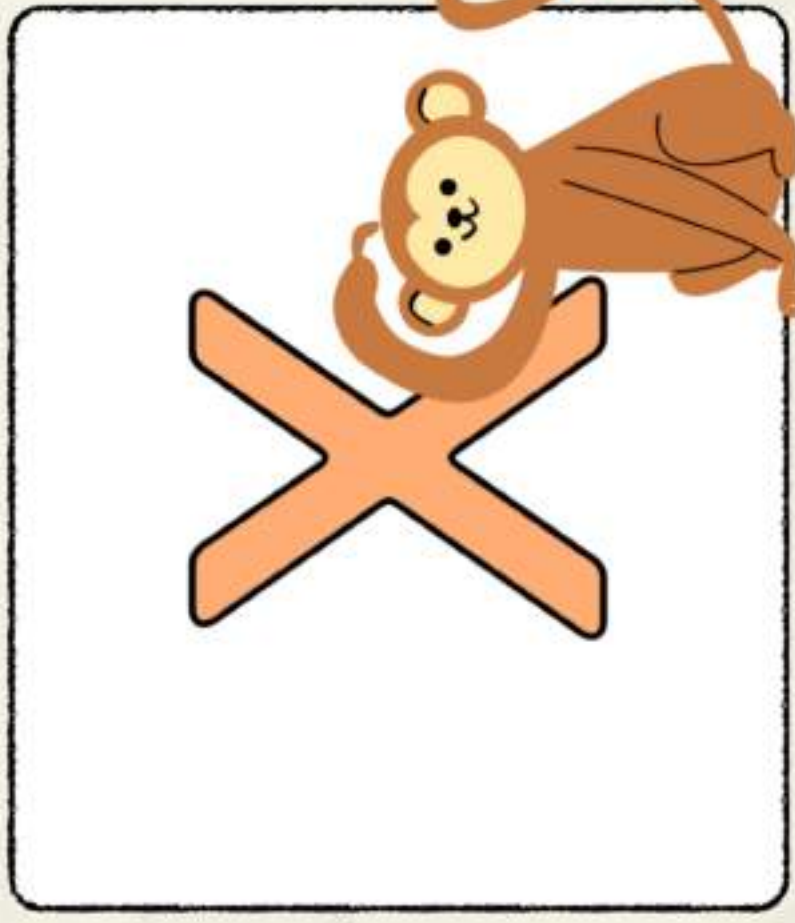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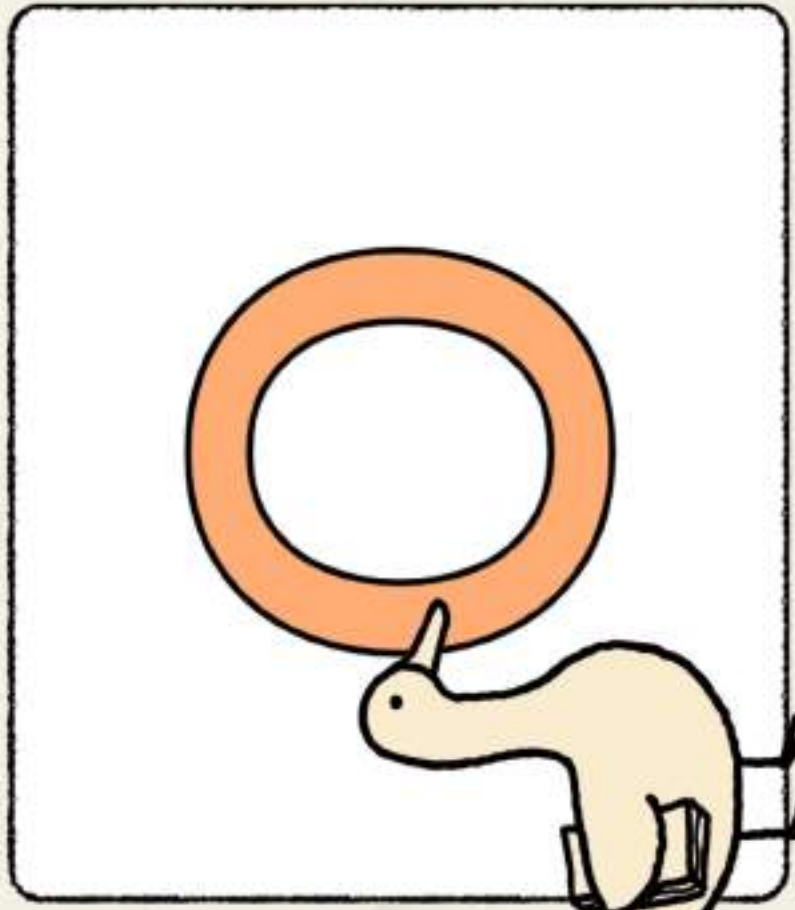
CHAPTER 2

Quiz time!



1. 나가가노현—지고쿠다니아생원숭이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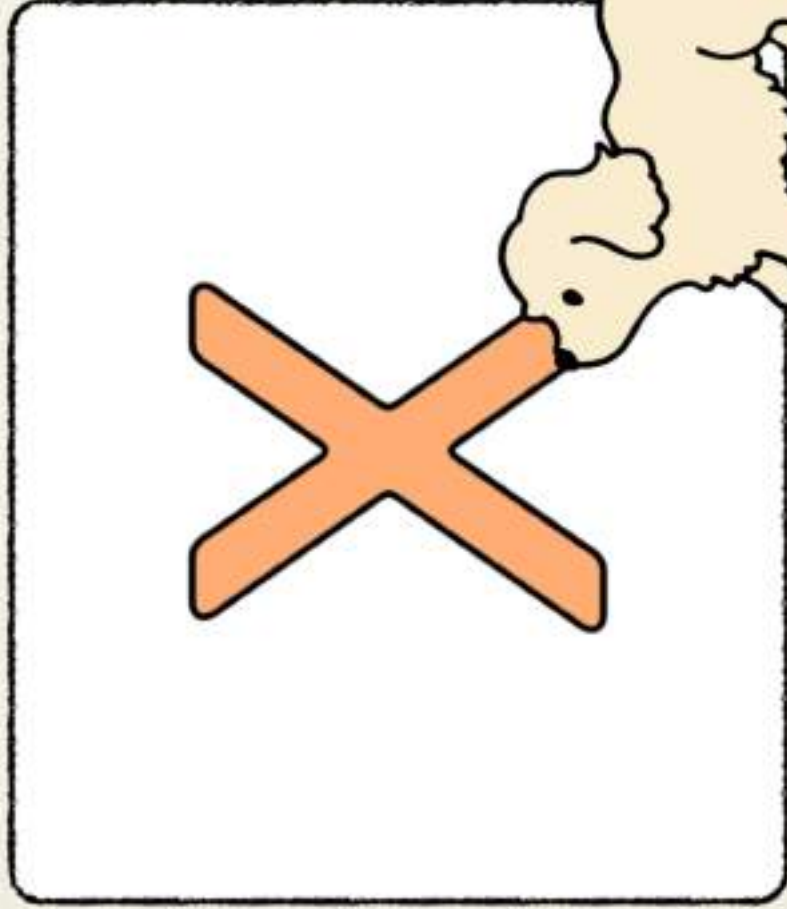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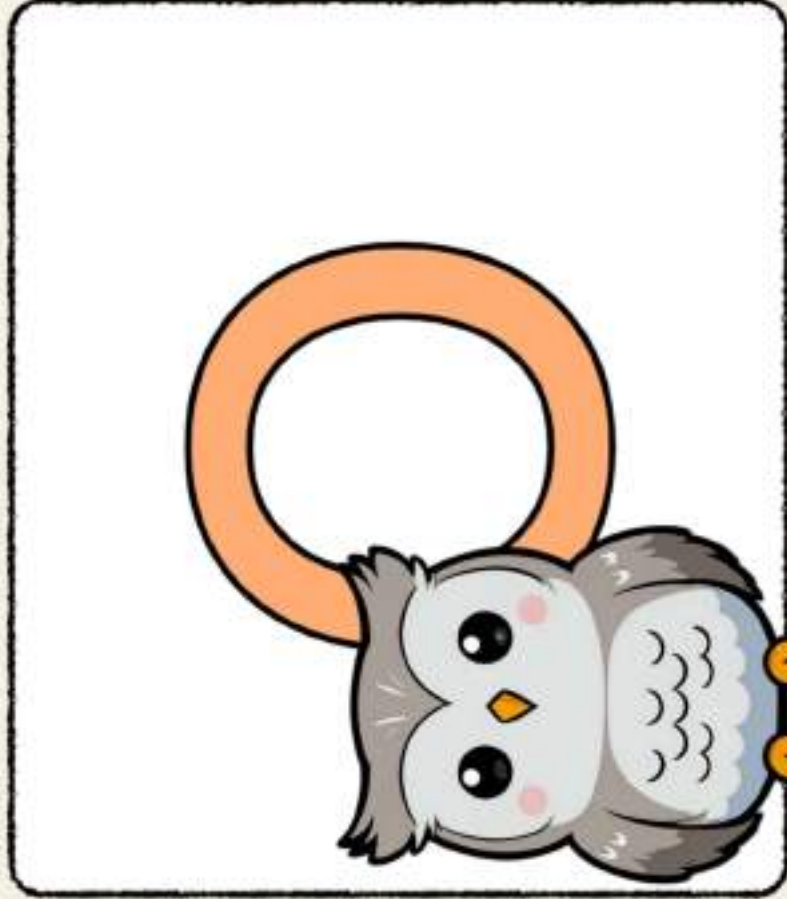
이곳의 원숭이들에게 특정한 과일을 주는 재미를 줄 수 있다!





2.도쿄-후쿠로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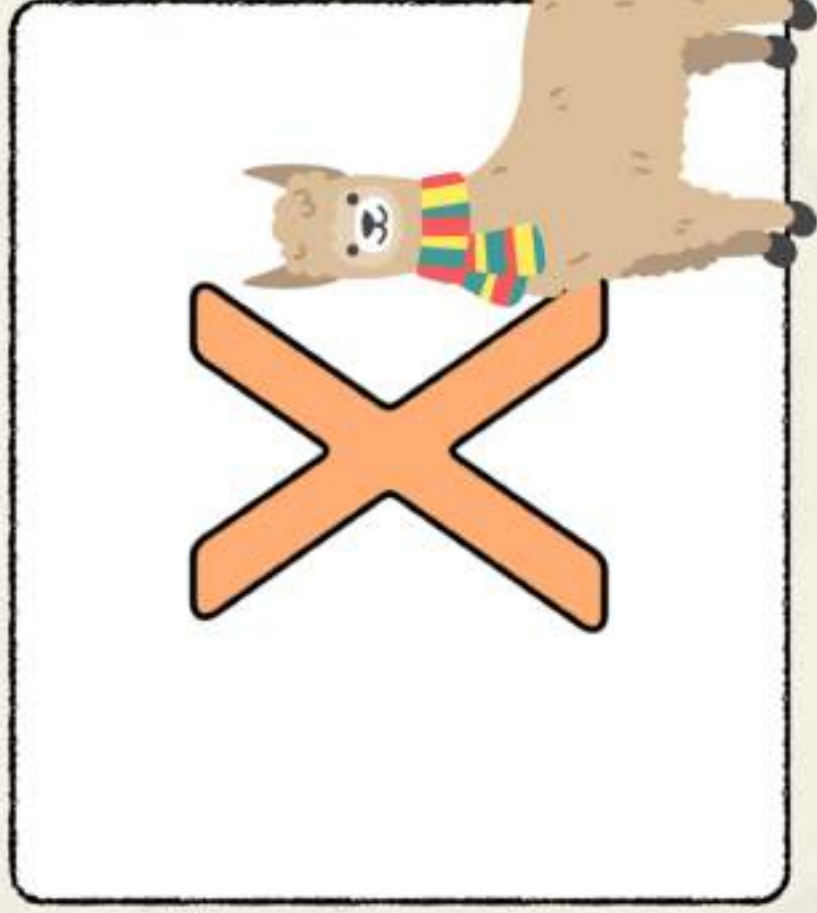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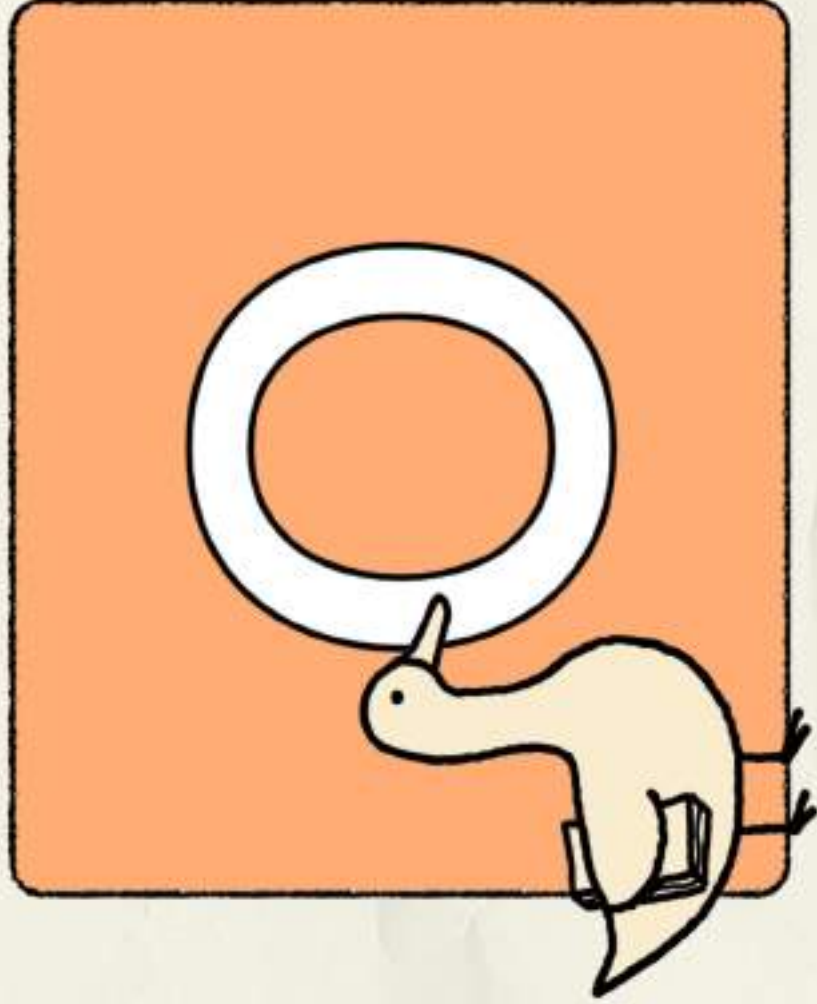
도쿄에 있는 많은 후쿠로 카페가 있지만 예약하지 않으면 방문이 어렵다!





3. 토치기현-알파카 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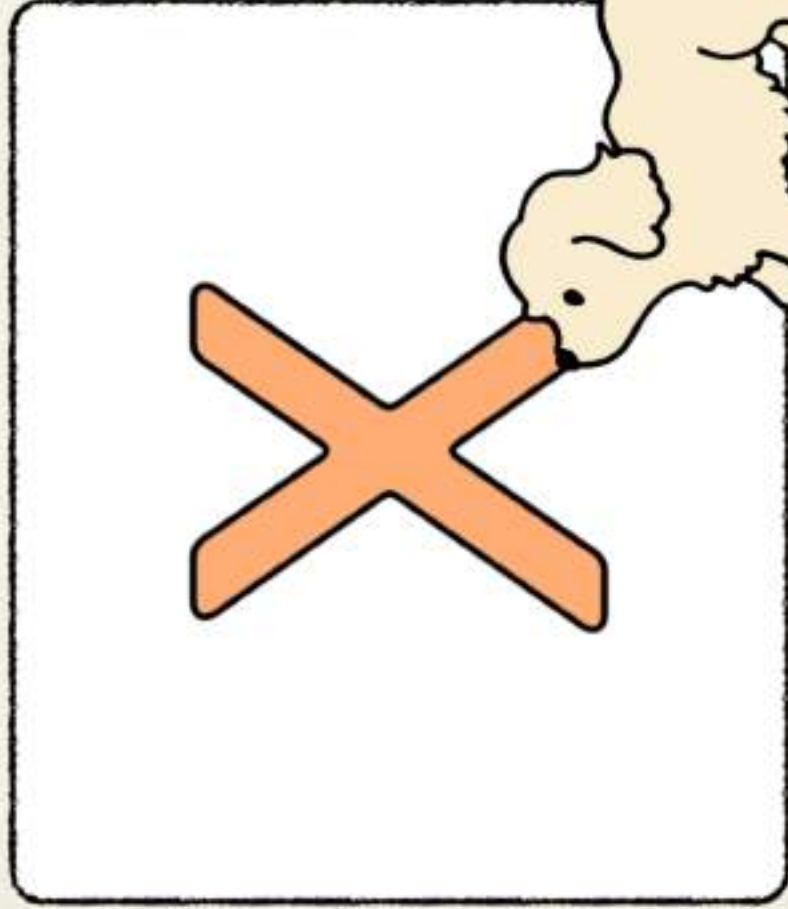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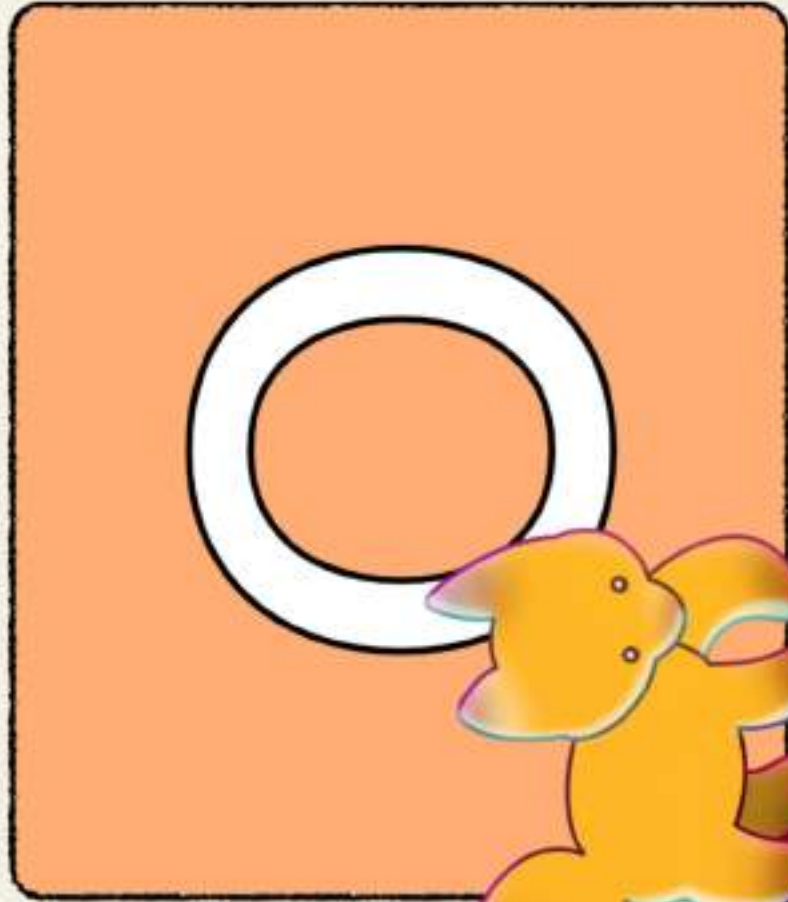
이 농장에는 알파카 뿐만 아니라 사자, 기린, 호랑이 등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네!





4. 미야기현-자오 여우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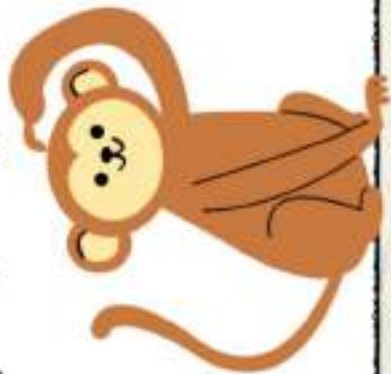
이 마을에는 여우신을 모시는 이나리 신사가 있다!





1. 나가노현 - 지고쿠다리아생원숭이공원

이곳의 원숭이들은
특정 구역에서 먹이를
줄 수 있다



X

원숭이들에게 절대 먹이를 주거나, 손을
대거나, 위협적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2.도쿄-후쿠로 카페

도쿄에 있는 많은 후쿠로
카페가 있지만 예약하지
않을 시 방문이 어렵다!



도쿄에 올때마다 카페가 몇몇이 있지만 인기가
많은 예약을 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Voyagin을 통해 예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토치기현-알파카 농장

이 농장에는 알파카 뿐만 아니라 사자, 기린, 호랑이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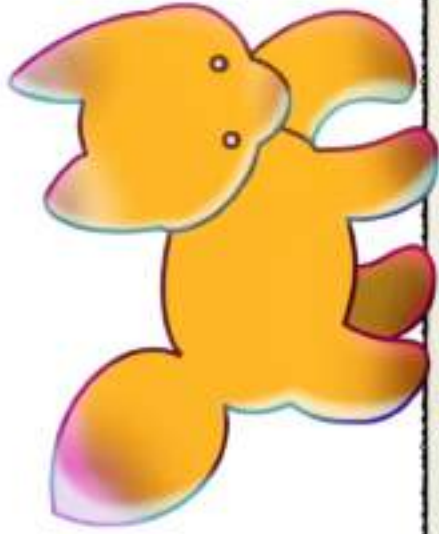
X

보통 동물원하면 떠올리는 사자, 호랑이, 기린, 코끼리 등의 동물들은 이 동물원에서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4. 이야기기현-자오 여우마을



이 마을에는 여우신을
모시는 이나라, 신사가 잇다!



두 여우 조각사가 나라히 세우자 잇는
마을의 빨간 이나라, 신사를 방문하여
장난꾸러기 여우들과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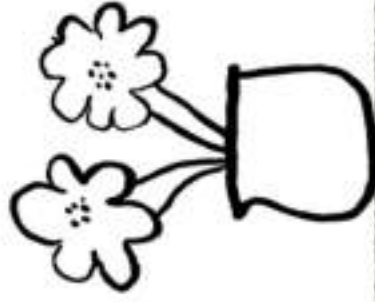
CHAPTER 2

일본에만 존재하는 동물들

일본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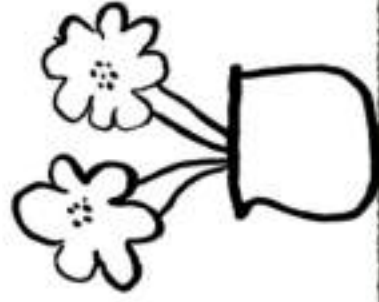
일본 꿩은 일본에 서식하는 꿩의 종류이다. 크기는 한국 꿩과 비슷하지만 색이 다르다. 인가 근처의 산림지대나 초원에 서식한다. 잡식성을 열매 곡류 곤충 등을 먹는다. 번식기에는 수컷 한 마리 암컷 3마리 정도 모여 생활하며 일부분만 분포한다. 현재 일본의 국조로 지정되어 있다.



청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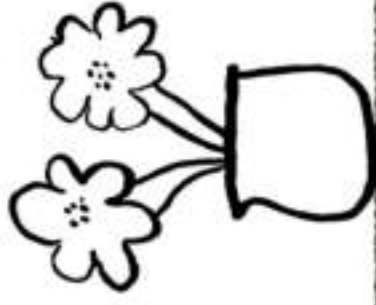
청대장은 뱀고개에 속하는 뱀종이다. 일부 고유종으로 후카이도
큐슈 시코쿠 등에 서식한다. 신장은 1m~2m 몸통 직경은 5cm
정도이다. 체색은 주로 암 황갈색에서 암녹색 톤이지만 개체
차가 크다. 탈피 직후에는 파란색이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 칙칙해진다.



일본산하늘다람쥐



일본산하늘다람쥐는 설치류의 일종이다. 일본의 토착종으로
흔수오 규슈의 아한대 숲과 상록수림에서 서식한다. 몸길이는
최대 20cm까지 자라고 순무과 발목을 연결하는 막이 있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할 수 있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국
제 자연보전연맹이 관심 대상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성질이
온순하여 사육하기에 좋다.



THANK YOU!

